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Investment Strategy
2026.11.6

[시황]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월스트리트파인더 Ep.213

미국 중간선거, 정치적 안도와 투자 지형의 변화

- 민주당 압승, 의회 견제력 확대와 정책 교착
- 선거 안도 랠리 반전, 시장 변동성 재확대
- AI 성장 유효, 인프라·현금흐름 중심의 선별
- (Weekly Preview) 앤트로픽 IPO 로드쇼, 미국 10월 CPI · PPI 발표

Executive Summary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탈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정책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 이전부터 민주당의 양원 장악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까지 확산된 승리와 하원에서의 압도적인 의석 확보 전망은 주목할 변화다. 다만 의회 장악이 민주당의 독자적인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지되는 가운데 예산·세제·인사에 대한 견제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책 교착 가능성도 확대된 상황이다.

금융시장은 민주당 압승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4일 S&P500과 다우지수는 각각 1.58%, 3.0% 상승했지만, 5일에는 각각 4.36%, 3.44% 하락했고 나스닥은 5.52% 급락했다. 선거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안도 랠리가 하루 만에 반전된 셈이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과 과도하게 쏠린 포지션의 청산이 맞물리면서 헤지펀드 디레버리징, 레버리지 ETF·CTA의 시스템 매도 등이 하락 압력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만으로 시장의 위험 선호가 회복되기에는 부담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AI 산업에서는 기업별 투자 환경의 차별화가 나타났다. 선거 직후인 4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상승한 반면, 엔비디아와 일부 신규 데이터센터 운영사는 약세를 보였다. 여기에 텍사스 등 주요 데이터센터 지역의 인허가와 세제 혜택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기존 AI 투자 위험이 자본조달과 수익성 검증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전력·용수 확보와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까지 판단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 변동성에 유의하되 중장기 AI 성장과 인프라 투자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말까지는 레임덕 의회의 예산 협상과 정책 처리 과정이, 내년 1분기에는 새 의회 출범 이후 재정정책과 데이터센터 규제의 구체화 여부가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적 기대보다 금리 안정과 기업이익의 가시성, 정책 변화의 실제 영향을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선별할 시점이다.

※ 참고1. (11/6) Market issue – 시장코멘트: 데이터센터와 AI포지션청산(김성근,김석환)

※ 참고2. (11/2)글로벌 주식 전략 – 미국 중간선거 미리보기(김성근)

Issue D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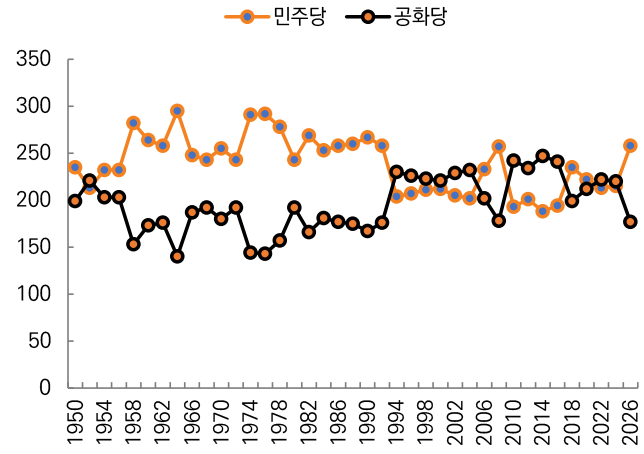
블루쓰나미, 정책 견제와 교착의 양면성

민주당의 압승은 단순한 의회 다수당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선거 이전 민주당의 양원 장악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실제로는 공화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도 승리가 이어졌다. 6일 현재,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원에서 253석을 확보하였고, 남은 25개 선거구 중 8개에서 리드를 하고 있다. 이는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 정부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기존 지지 기반을 넘어 확산됐음을 시사한다. 다만 하원 최종 의석수와 역대 선거 대비 압승의 정도는 남은 개표 결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에 제약을 가할 수 있지만, 민주당 중심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상원 의사진행 규칙을 고려하면 신규 입법은 양당 간 협상에 상당 부분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 심의와 주요 인사 인준, 의회 조사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을 높일 수 있다. AI와 빅테크에 대한 조사 역시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규제 부담과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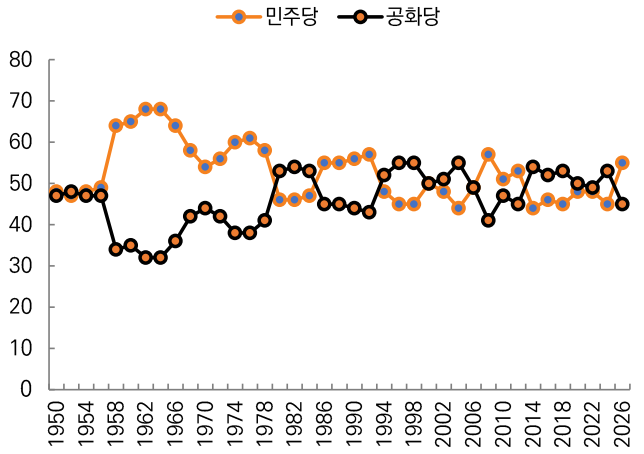
정책 교착의 영향은 재정 확대 제약과 행정부·의회 간 권한 충돌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양원 장악에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상원의 의사진행 규칙을 고려하면 대규모 신규 입법과 재정지출 확대에는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이는 추가 국채 발행과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2027년 중반으로 예상되는 부채한도 협상에서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새로운 협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관세와 대외정책 역시 행정부 권한을 통해 상당 부분 유지될 수 있어, 의회 권력 변화만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림 1. 상원: 민주당, 2008년 이후 최다 의석(55석) 확보 예상



주: 미시시피와 알래스카의 최종 결과 확인은 수일~수주 소요 전망.
자료: 미국 하원, 외신종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하원: 민주당, 1992년 이후 최다 의석(258석) 확보 예상



주: 6일 현재, 민주당 253석/공화당 157석 확정. 25석은 수일 내 최종 결과 나올 전망
자료: 미국 상원, 외신종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1. 미국 상원 및 하원 최종 예상 의석수

예측 기관 / 매체	상원(Senate)		하원(House)	
	민주당(연합포함)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NBC News	55	45	259	176
뉴욕타임스	54	46	258	177
CNBC/AP	56	44	257	178
Decision Desk HQ / Cook Political	55	45	258	177
평균	**55**	**45**	**258**	**177**

자료: 외신종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주: 11월 4-5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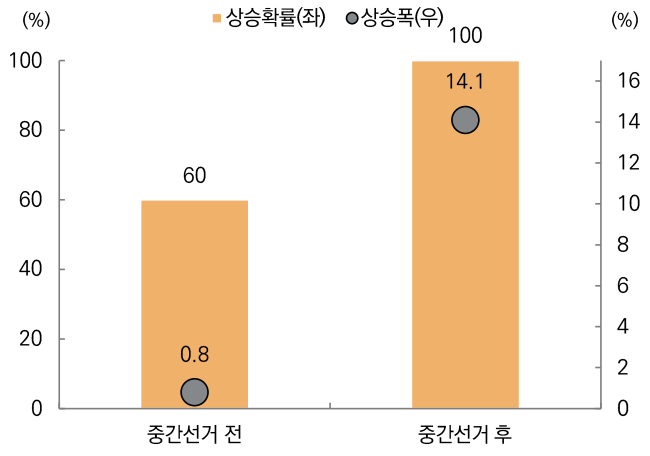
선거 이후 강세 공식, 하루 만에 시험대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 이후 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왔지만 과거의 상승 패턴이 반복될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1946년 이후 20차례 중간선거 종료 후 6개월 동안 S&P500은 모두 상승했고 평균상승률은 14.1%를 기록했다. 다만 이를 선거 자체의 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뿐 아니라 당시의 경기와 금리, 기업이익 환경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직후 금융시장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4일 S&P500과 다우지수는 각각 1.5%, 3.0% 상승하며 선거 불확실성 해소를 반영했지만, 5일에는 S&P500(-4.4%), 나스닥(-5.5%), 다우지수(-3.4%)가 동반 급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약 12% 하락하며 2025년 4월 이후 가장 큰 조정 폭을 기록했다. 민주당의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가능성에 더해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과 과도하게 쏠린 포지션의 청산이 매도 압력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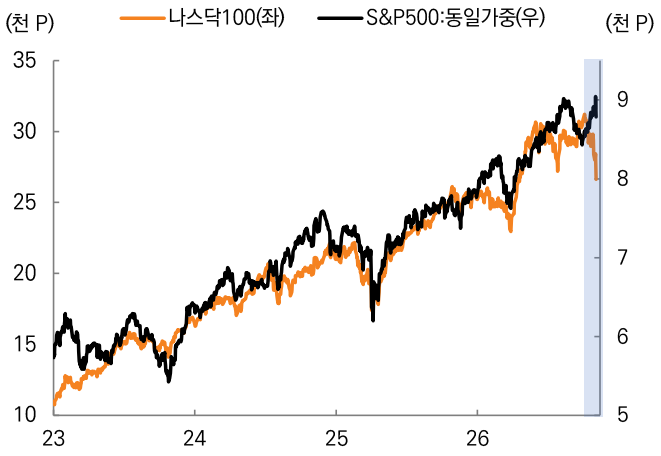
특히 이번 조정은 AI 관련주에 국한되지 않고 S&P500 전 업종으로 확산됐다. 헤지펀드의 디레버리징과 레버리지 ETF·CTA의 시스템 매도가 하락을 증폭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했지만, 이는 경기 낙관에 따른 금리 안정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선거 이후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보다 AI 투자 회수 가능성, 밸류에이션 부담과 포지션 쏠림을 더욱 민감하게 반영하는 모습이다.

그림 3. S&P500, 중간선거 전후 상승확률 및 상승폭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주: 중간선거 전 · 후 6개월 기준

그림 4. 나스닥100과 S&P500 동일가중지수의 상대 성과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I 투자, 인허가와 정책이 새로운 제약 요인

민주당 압승 이후 AI 산업에서는 기업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4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상승한 반면, 엔비디아와 일부 신규 데이터센터 운영사는 약세를 보였다.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신규 설비 증설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의 성장 전망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존 인프라와 고객 기반을 확보한 대형 클라우드 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당일 주가 차별화가 구조적인 경쟁력 변화로 이어질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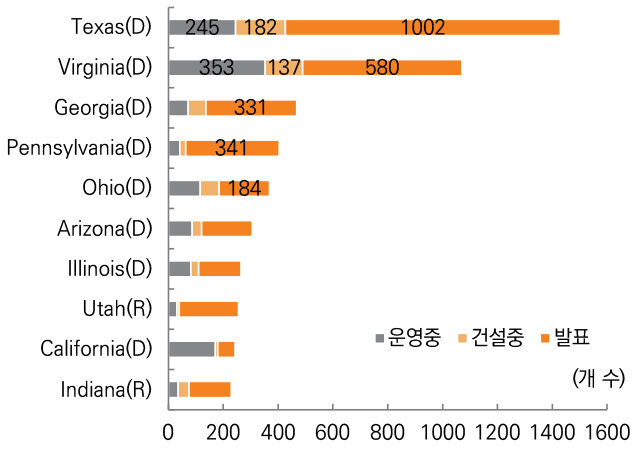
주목할 변화는 AI 투자의 제약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투자 위험은 높은 자본지출과 차입 부담,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에 집중됐다. 여기에 텍사스를 비롯한 주요 데이터센터 지역에서 전력·용수·환경 문제와 세제 혜택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주정부별 정책 방향에 따라 데이터센터 착공 시점과 건설 비용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인허가와 전력 공급 계약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별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표 2. 주요 주지사별 AI 및 데이터센터 정책 스탠스 요약

주 (State)	하원	상원	주지사 (당선인)	데이터센터 정책 스탠스
텍사스	14D, 24R	D/R	(D) 지나 히노호사*	즉각적인 건설 모라토리엄 및 세제 혜택 중단 촉구
펜실베니아	11D, 6R	D/R	(D) 조시 샤피로	엄격한 에너지 표준 의무화 및 지역 의사결정 보장
조지아	5D, 9R	D	(D) 키샤 랜스 바텀스*	주 전역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의 일시 중단 촉구
뉴멕시코	3D	D	(D) 뎁 홀랜드	취임 즉시 대규모 데이터센터 신규 제안 승인 유예
오하이오	8D, 7R	D/R	(D) 에이미 액턴*	공공요금 빅테크 자부담 및 조건부 건설 유예 지지
위스콘신	4D, 4R	D/R	(D) 데이비드 크롤리	인프라 규제 도입 및 환경 리뷰 중 건설 중단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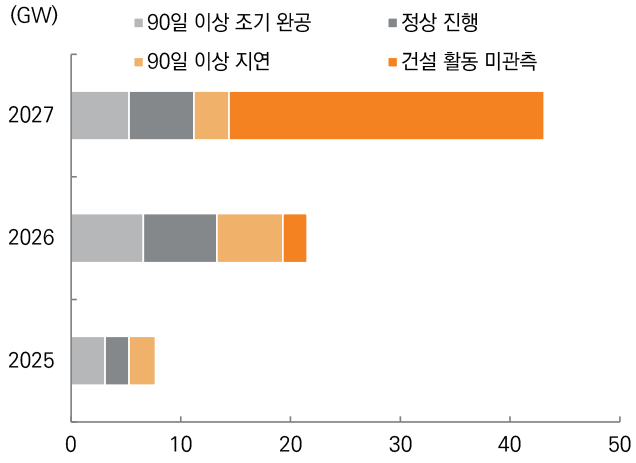
주: *은 공화당 현역 의원/주지사 자리를 민주당이 탈환(Flip)했음을 의미함. 민주당 'D', 공화당 'R'로 표시. 조지아와 뉴멕시코는 이번에 상원 1석만 선출
자료: 외신종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데이터센터 건설 상위 10개 주: 민주당 주지사 8명



자료: aterio.io,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현황



자료: FT, IIR Energy,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선거 이후 달라진 투자 판단의 기준

이번 조정이 AI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 둔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MD와 아리스타 네트웍스 등 주요 기업의 실적에서 확인되듯 AI 컴퓨팅과 네트워크 수요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과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서비스 확산과 컴퓨팅 수요 증가가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최근의 주가 조정과 산업의 성장 전망을 동일한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투자 기회 역시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운영사에 국한하기보다 전력망·전력기기·네트워크 등 인프라 전반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 데이터센터 증설 과정에서 전력 공급과 컴퓨팅 자원의 확보가 중요한 경쟁 요인으로 부각될수록 관련 설비와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의 역할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수요 증가가 실제 수주와 이익 개선으로 연결되는 기업일수록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자산배분 측면에서는 금리 안정에 따른 미국 중장기 국채의 상대적 매력과 AI 인프라 관련 성장 기회를 함께 살펴볼 만하다. 또한 이익 가시성이 높은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와 정책 지원이 기대되는 청정에너지·헬스케어 업종으로 투자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과 밸류에이션 부담을 고려한 선별적 접근이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산업의 성장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표 3. 미국 새 의회 출범 전후 주요 정책·경제 일정

시기	일정	체크포인트
2026년		
11월 중순~	미국 의회 레임덕 회기	기존 의회 주도의 주요 법안 선제 처리 여부
12월 8~9일	12월 FOMC 회의	연준의 금리 경로와 물가 판단
12월 11일	연방정부 임시예산 시한 만료	FY2027 예산 합의 및 셧다운 가능성
12월 중~말	FY2027 정규예산·추가 임시예산 협상	예산 협상 교착과 재정 불확실성 확대 여부
2027년		
1월 3일	제120대 미국 의회 개시	민주당의 양원 장악과 정책 견제력 반영
1~3월	주정부 데이터센터 정책 구체화	인허가 중단 및 세제 혜택 폐지의 실제 시행 여부
1월 26~27일	2027년 첫 FOMC	연준의 금리 경로와 물가 판단
2월 초	FY2028 대통령 예산안 제출	재정지출 우선순위와 정책 변화 가시화
2~3월	새 의회 예산 심사 및 주요 청문회	AI·빅테크 규제와 재정정책 견제 본격화 여부
3월 16~17일	3월 FOMC·경제전망 발표	성장률·물가·기준금리 전망 변화
1~6월	AI·데이터센터 관련 정책 및 입법 논의	전력·용수·인허가 규제의 기업 영향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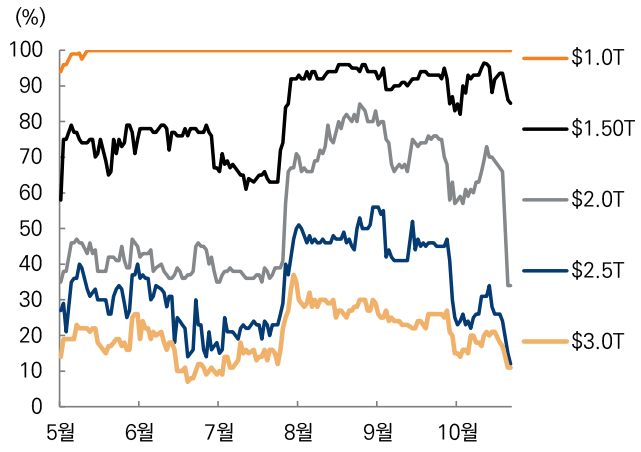
Weekly Preview

앤트로픽 IPO 로드쇼, 미국 10월 CPI · PPI 발표

- **(주중) 앤트로픽 IPO 로드쇼:** 11월 9일 주간 예정된 로드쇼는 기술주 급락과 할인 요구로 지연 우려가 커졌다. 미 중간선거 이후 데이터센터 인허가 규제 우려와 AI 인프라 수익성·조달 부담이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눈높이는 2조 달러에서 1.5조~1.6조 달러로 낮아졌다. 예측조사기관 Polymarket의 2조 달러 시나리오 확률도 10월 초 70% 안팎에서 30%대로 하락했다. 3분기 매출은 169.6억 달러(+47% QoQ)였지만 컴퓨팅·인프라 비용은 99억 달러(+77%)로 더 빨리 늘었고 GAAP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로드쇼 성사 여부와 공모가 할인 폭이 AI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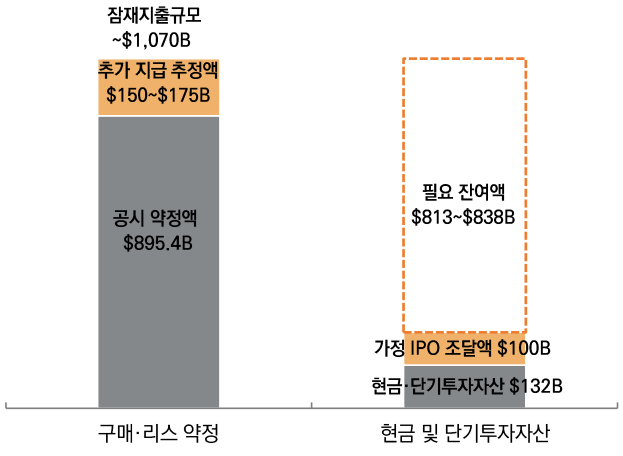
- **(10일·13일) 미국 10월 CPI·PPI:** 9월 헤드라인 CPI는 전년대비 3.7%, 근원 CPI는 2.6% 상승했고, 월간 상승률은 각각 0.6%, 0.3%였다. 휘발유 가격이 9.1% 올라 헤드라인을 주도했다. 10월 들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5달러로 10월 초 4.35달러에서 하락했지만 전년비 38% 높은 수준이다. 근원 CPI가 두 달 연속 0.3% 오른 만큼 주거비·서비스 둔화가 핵심이다. 10월 FOMC는 3.75~4.00%로 동결했지만 2명이 인상을 주장한 만큼 물가 재가속 시 12월 추가 인상 기대가 커질 수 있으며, 13일 PPI로 생산단계 비용 압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앤트로픽 IPO 기업가치별 예측 확률



자료: Polymark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주: 11월 5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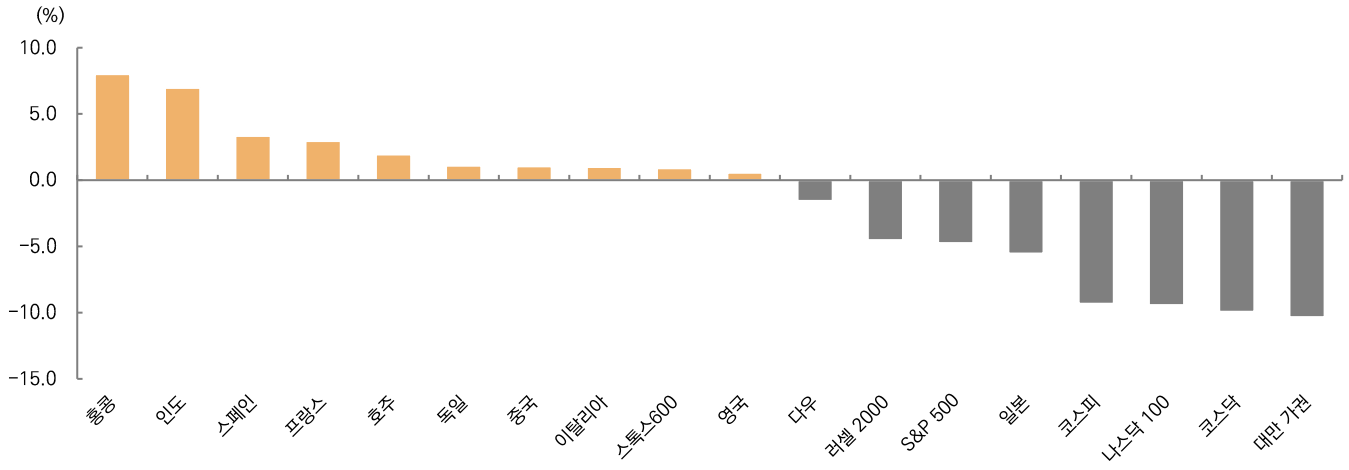
그림 8. 앤트로픽 컴퓨팅 · 인프라 약정 및 재원 현황



자료: 앤트로픽 S-1/A, 외신종합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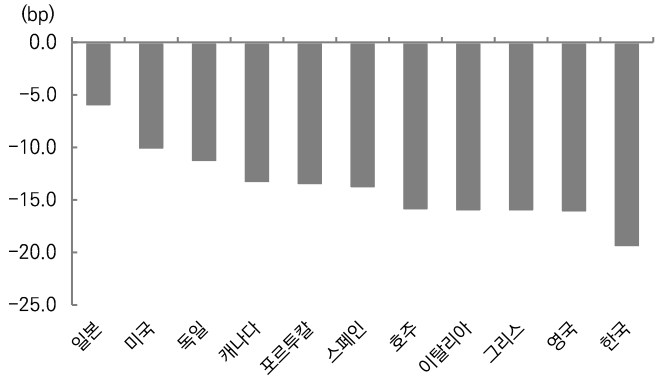
주간 글로벌 마켓 스냅샷(10.30~11.5)

그림 9. 주요국 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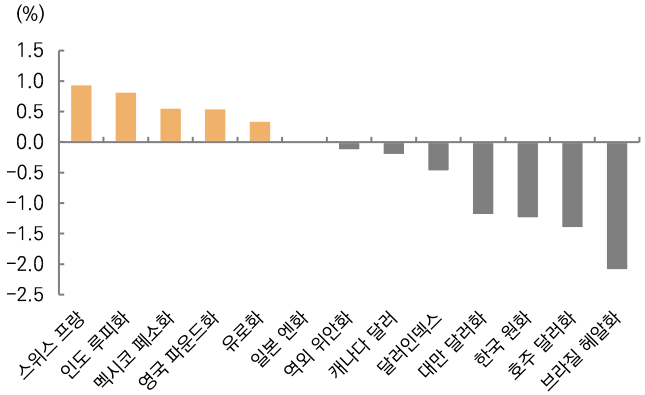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주요국 10년 국채 등락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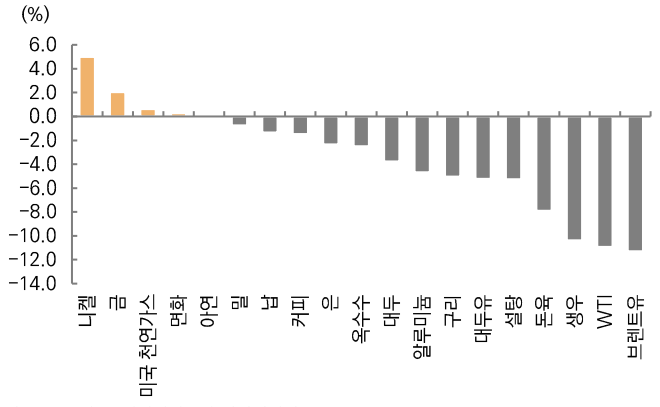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주요국 통화 가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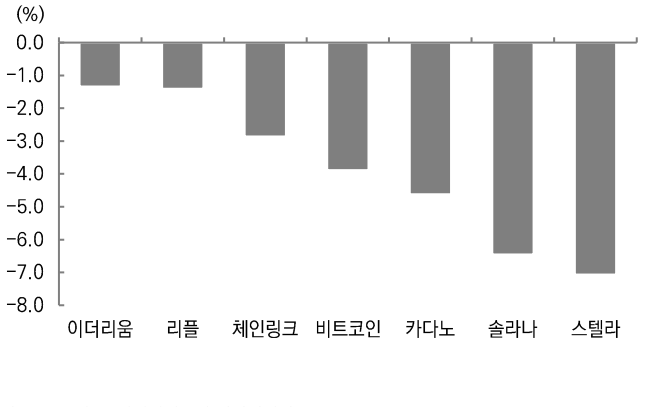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블룸버그 상품지수 품목별 등락률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나스닥 CME 크립토 지수 항목별 등락률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경제지표&일정

그림 14. 주간 경제지표 & 일정

	경제 지표	일정
9일 (월)	• 중국, 10월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 독일, 9월 무역수지 • 미국, 10월 소비자기대조사	• 실적: 두산, 원익IPS, 한전KPS, KKR, 로캣랩, 테이크투인터렉티브, 콘스텔레이션에너지, NGR에너지, 옥시덴탈 • 행사: 앤트로픽 IPO 로드쇼(예정) 엔비디아 AI데이 서울 2026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20일)
10일 (화)	• 중국, 10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 일본, 9월 가계지출 •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이전 YoY +3.7%)	• 실적: CJ대한통운, KT, 시프트업, 크래프톤, TSMC 10월 매출, 코어위브, 트랜스다임 • 공개: 일본 BOJ 금융정책회의 주요 의견 공개 EIA 단기에너지전망보고서
11일 (수)	• 한국, 10월 고용동향(이전 실업률 2.6%) • 독일, 10월 소비자물가지수 • 미국, 10월 월간재정수지	• 채권: 미국 10년 만기 국채 입찰 • 공개: OPEC 월간 석유시장보고서 MSCI 11월 정기 변경 발표 • 행사: 중국 광군제 • 휴장: 미국 채권시장 휴장(Veterans Day)
12일 (목)	• 영국, 3분기 GDP (잠정치) • 미국, 10월 기존주택판매	• 채권: 미국 30년 만기 국채 입찰 • 실적: 클래시스, 시스코시스템즈,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캐나디언솔라
13일 (금)	• 한국, 9월 통화 및 유동성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 미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	• 실적: 현대해상 • 공개: IEA 원유시장보고서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주: 현지시각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